

야생동식물 보호에 우리도 동참을...

— 동식물 학대에 조금도 뒤질것 없는 과거를 반성하며 —

‘great auk’라는 새가 과거에 있었다.

한동안 북반구의 추운 지방에 아주 흔해서 ‘북반구의 펭귄’이라고도 불리웠던 이 새는 체구가 크고 날지 못하며 빨리 걸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아주 둔한 새였다.

이 새는 1534년 한 프랑스 탐험가에 의해 뉴 펀들란드해안의 핑크섬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그의 대원들이 몇 마리를 잡아 식량으로 사용한 것이 이 불운의 새가 인류와 처음 접촉한 사건이었다.

이 새는 이 사건이후에도 2백 50년간을 평화롭게 생존했으나 1785년 베키와 매트리스의 속으로 쓰일 깃털을 구하는 상인들이 핑크섬에 도착하면서 깃털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학살됐고 1841년에 이 섬에서 완전하게 절멸됐다.

물론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 그리고 아일랜드의 섬에서 서식하고 있던 ‘great auk’의 운명도 핑크섬에서와 다를 바 없었다.

1844년 6월 3일 아이슬란드 남쪽해안의 엘디섬에서 Jon Brandsson과 Siguror Isleffson이



李廷鈞
(일간보사 환경부기자)

라는 두어부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한쌍의 ‘great auk’를 포획·살해했으며 이 한쌍이 품고 있던 마지막 알을 깨뜨려 버렸다.

‘great auk’라는 새가 한때 지구상에서 엄청난 수로 살았었다는 기록만 남긴채 이 새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절멸되는 순간이었다.

‘great auk’의 멸종은 인간들이 행한 동물종자절멸의 잘 알려진 한 사례에 불과하다.

인류의 현대문명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일거에 파괴해 수십종의 동식물을 멸종 시키기도 한다.

현재 지구상에는 9천종의 새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종자의 새가 발견되는 것은 1년에 1~2건에 불과하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자의 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학자들은 새를 분류하는 조류학이 시작된 1600년 이후 1백 8개 종자의 새가 절멸됐다고 보고 있다.

북미주와 유럽에는 새를 관찰하는 취미 즉 ‘bird-watching’ 취미가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새가 절멸되었는가는 곧 파악된다는 것.

최근에 미국에서 절멸된 ‘dusky seaside sparrow’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플로리다주 타이터스빌의 늪습지에 서식하는 이 종자는 서식지가 파괴되자 급속히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러자 야생동식물관리당국은 이들 새에 인식표지를 했다. 그 숫자가 여섯 마리로 줄자 당국은 여섯마리를 포획해 보호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여섯마리는 모두 숫놈이었고 87년 6월 16일 관리당국의 보호아래 마지막 새가 죽어 이 종자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이같은 예는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 흔한 일이며 남미·아시아·아프리카에서는 전혀 관측되지 않고 보고도 되지 않은채 종자의 절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류뿐만 아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삼림의 경우에는 2백 66종자의 어류가 파악됐는데 최근 이 지역의 목재가 벌채되자 단지 1백 22종만이 확인돼 나머지는 거의 멸종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미국의 식물학자 Alwyn Gentry는 에콰도르의 한 고립된 산등어리에서 매우 아름다운 38종의 식물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는데 그 지역의 나무가 벌채되자 38종은 동시에 자취를 감췄다.

우리는 이상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조류·식물·어류 등 생태계의 기간을 이루는 생물종의 절멸의 원인이 인간임을 알 수 있고 또 그로부터 인간이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행위를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를 인용하면 대략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획에 의한 것으로 어떤 동물을 번식하는 율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포획함으로써 절멸된다는 것. 1만년전의 맘모스와 캘리포니아의 그리즈리곰이 그 예이고 지금도 코끼리·코뿔소가 상아와 뿔때문에

곰쓸개 사슴뿔 등 보신을 위해 수 많은 야생동물을 포획했거나 포획하게 만드는 등 야생동물의 학대에 어느나라에 뒤질 것이 없는 우리로서는 이 시점에서 동식물보호조류에 동참함으로써 과거의 누를 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획되고 있다.

둘째, 인간이 기존의 생태계에 새로운 종자를 투입함으로써 기존의 생태계에 있던 종자들이 절멸되는 경우.

예컨대 유럽에서 건너간 염소와 쥐가 북미대륙의 많은 동식물의 종자를 절멸시키거나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수에 양식어업을 위해 투입된 나일 농어가 빅토리아호에 있던 수백종의 어류를 먹어치운 것 등이다.

셋째, 서식지가 파괴됨에 따라 종자가 절멸하는 경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열대삼림의 파괴로 인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파괴 등이 그 예로 가장 심각한 전지구적 문제이기도 하

다. 한때 원시림이었던 대서양 쪽의 아마존삼림과 말레이시아의 삼림이 거의 파괴되거나 보르네오와 필리핀의 열대삼림이 겪는 수난도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네번째, 도미노 효과에 따라 종자가 절멸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1914년 파나마운하가 완성되자 콜로라도지역이 인공호수의 섬이 되었다. 그러자 자규어 등 대형육식동물이 사라졌다. 대형육식동물의 증발은 원숭이·산돼지 등 중간단계의 육식동물이 이상번식했고 개미핥이새(antbird)가 이들의 먹이가 돼서 그 섬에서 사라진 것이다.

요즘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들 야생동식물을 보호하자는 주장, 특히 구속력을 지닌 보호대책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협약」(일명 워싱턴협약)이나 「생물종다양성 협약」등이 그것이다.

이들 움직임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인식은 야생동물이 미래의 인류식량이고 의약품의 원료이며 에너지자원의 원천이라는 주장이다.

곰쓸개, 사슴뿔 등 보신을 위해 수 많은 야생동물을 포획했거나 포획하게 만드는 등 야생동물의 학대에 어느나라에 뒤질 것이 없는 우리로서는 이 시점에서 동식물보호조류에 동참함으로써 과거의 누를 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